

31사단 장병들, 열탈진 90대 구조 '훈훈'

공병대 정다혜 대위·임지영 소위·박민체 하사·이수 하사 길거리 발견 후 응급처치 실시...국민신문고 통해 미담 전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폭염 속에서 열탈진으로 쓰러진 90대 할아버지를 신속하게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공병대대 소속 정다혜 대위, 임지영 소위, 박민체 하사, 이수 하사다.

8일 31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정오께 북구 삼각동 인근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목격했다.

당시 날씨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매우 무더웠던 터라 할아버지를 그대로 둔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병들은 차를 세우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고, 그가 열탈진으로 쓰러졌음을 직감해 즉시 그늘진 곳으로 옮겼다.

또 주민센터에서 생수와 물티슈를 구해왔고 정 대위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다 약 부무를 발견했다.

정 대위는 처방 병원에 연락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추가 확인했고 박 하사와 이 하사는 119구조대 도착 전까지 마사지를 실시하며 혈액 순환을 도왔다.

이들의 조치 덕에 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했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로부터 생명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부대로 복귀했다.

장병들의 선행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는 “군인들이 보여준 응급처치가 참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최근 폭염 속에서 열탈진으로 쓰러진 90대 할아버지를 신속하게 구조, 생명을 구한 사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졌다. 왼쪽부터 선행의 주인공인 임지영 소위, 박민체 하사, 이수 하사, 정다혜 대위.

착하고 조직적이라 놀라웠다”며 “많은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응급처치를 주도한 정다혜 대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인

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 뿐”이라며 “이번 일을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제공>



담양소방, 화재 예방 지도점검·안전 캠페인

담양소방서는 “최근 윤예심 서장, 이정호 예방안전과장, 정명권 예방홍보팀장 등이 창평 임시 5일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지도점검 및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등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귀향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서장 및 창평시장 자율소방대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력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등이 병행 실시됐다.

또 소방-상인회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를 갖고 ▲시장 내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주력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명절 화재 예방 전단지 및 서한문 배부 ▲명절 대피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지도점검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준 상인회에 감사하며, 자율소방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폭염 속 거리 헤매던 치매노인...경찰 덕에 무사 귀가

서동현 순천경찰서 순경, 안전사고 예방 순찰 중 구조

순천경찰서는 “최근 서동현(28·사진) 신입 순경이 폭염 속 치매 노인을 발견, 무사히 집으로 귀가시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 순경은 지난달 22일 오후 1시40분께 폭염 안전사고 예방 순찰 중 순천 정암대 앞 왕복6차로에서 배회하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77세 할머니를 발견했다.

당시 날씨는 체감온도 32도가 넘어 온열질환이 우려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예상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서 순경은 할머니를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순찰차에 있는 생수를 건네 탈진과 체온 관리에 힘썼다. 이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일



전에 실종 신고가 된 이력이 있는 치매 노인을 떠올리고 112신고처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서 순경의 예리한 눈썰미와 판단력으로 치매노인 실종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광주송원초,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금상'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5회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초등부 광주대표로 출전해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25회를 맞은 올해 전국119소방동요 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 대표 32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초등부 경연에 출전한 광주송원초등학교 합창부 30명의 어린이는 ‘내가 첫 번째 소방관’이

라는 곡으로 뛰어난 가창력과 표현력, 무대 완성도 등 작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금상을 차지했다.

정승균 교장은 “점심시간을 쪼개 열심히 준비한 합창부 어린이들과 열심히 지도해 준 김지연·정희연 선생님께서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좋은 추억을 쌓고 안전의식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전남도,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전남도는 지난 6일 동부청사에서 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여명과 함께 ‘제5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다짐했다.

‘맑은 공기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기념행사와 특강, 키즈 이벤트, 기후변화 캠페인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주제 영상을 상영하고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민간인 2명과 시·군

공무원 3명에게 전남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참석자 모두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함께 실천하자는 다짐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 이어 푸른 하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배터리 기술·안전 등에 관해 문제주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올해로 5회째인 ‘푸른 하늘의 날’은 청정 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가 제안해 2019년 유엔(UN) 기념일로 지정됐다.

/양시원 기자



전남대, 초광역 연합의료 AI연구센터 개소

전남대학교가 초광역 연합 의료 AI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8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남대, 전남대병원, 경북대, 경북대병원, 협력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는 전남대가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2024 대학 ICT연구센터사업(ITRC)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8년간 75억원을 지원받고, 영호남을 대표하는 대학과 병원의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인재 양성 및 초광역 연합 의료 AI 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AI 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 탁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또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의료 산업을 선도하는 석·박사급 ICT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양형정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의료계에 새로운 비전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맞춤형 치료 등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취약계층에 라면 기탁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최근 연동·신흥동에 라면 250상자, 목원동에 라면 200상자를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기탁된 라면은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위기가구,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 금융기관인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지역민과 상생하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라면 등을 기탁, 지역사회 공헌과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폭염 장기화

로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을 이웃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모두 무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경 연동장과 정순양 신흥동장은 “매해 명절마다 지역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주는 목포중앙새마을금고에 감사하다”며 “추석 명절 동안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동에서도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박현주 목원동장도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영광경찰, 청소년 디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영광경찰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AI 기술 등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 허위영상물(디페이크)을 제작·배포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디페이크 범죄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영광경찰은 디페이크 관련 예방 홍보자료를 제작해 영광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13개교), 중학교(10개교), 고등학교(6개교)와 지역 맘카페·여성일상지킴이·청소년 정책자문단 등에 전달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디페이크 집중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별 찾아가는 특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인신 영광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문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장성경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장성경찰서는 “최근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보행자 안전수칙 동영상 시청, 교통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3원칙(서다, 보다, 걸다)을 준수하고 도로보행·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등 보행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결혼

▲이태일·김정숙씨 아들 동근군, 이인중·윤영숙씨 딸 혜인양=21일(토) 오후 1시50분 서울 영등포 워더스웨딩홀 7층 펠리체홀.